



안성낙화놀이 남대천 일대에서 9월 1~2일 밤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딧불축제, 이제부터 진짜

금·토·일 다채로운 프로그램 내세워 관광객 손짓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을 불러 모으며 축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금, 토, 일 3일 간의 하이라이트를 예고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간 5,000여 명이 다녀가 변함없는 인기를 실감시킨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인터넷 예약 접수가 모두 매진됐지만 선착순으로 당일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탐사비용은 일반 탐사가 1만원, 스페셜이 1만 3,000원이다.

총 40가쪽(캠핑(20)-텐트, 숙박(20)-수련원 객실 제공)이 참여할 수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1박 2일 생태탐험' 참가신청도 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에서 받는다. 신비탐사, 축제장 투어, 풍등 날리기, 별보기 등을 패키지로 즐겨볼 수 있다.

9월 1일(21:30~)과 2일(22:30~) 남대천에서 진행되는 풍등놀이도 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에서 현재 신청이 가능하다. 풍등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모습이 장관인 풍등 날리기는 안성낙화놀이(남대천 / 9.1. 21:00~ / 9.2. 22:00~)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낙화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들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는 물 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로 한지에 쓴 뽕나무와 숲, 소금 물지, 밀린 쉼 등으로 만든 낙화봉 2,000여 개를 달고 불을 붙이면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들이 대금의 선율과 어우러져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무주군 안성면 주민(김평리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선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샛다리(홍나무와 솔가지, 흙을 이용해 놓은 가교) 전통혼례와 상여 행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10회 축제를 계기로 메인 프로그램이 된 샛다리 밟기(남대천 / 9.1. 18:00~ / 9.2. 17:00~ / 18:00~)는 샛다리 설치부터 재연까지 모두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9월 2일에는 무주농악보존회 공연(9.2. 17:30~ / 9.3. 11:00~)도 함께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큰 감동을 준다.

무주읍 대차리 서면소이나루 공원에서 진행(9.2.(금)~3.(토) 21:30~ 23:00 / 1인당 체험료 3,000원, 매트 임대료 2,000원)되는 '꿈을 담은 반딧불 찾기'도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다. 에어쿠션에 누워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으로 천문 전문가의 도움과 안내를 받으며 체험할 수 있다. 무주반딧불을 보며 마음에 새겨 넣은 각자의 '꿈'은 작은 엽서에 담아 '천천히 가는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 받아볼 수 있다.

9월 2일과 3일 오후 4시부터 남대천에서 반딧불이의 먹이 다슬기와 미꾸라지, 동자개 등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남대천 생명+'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선착순 참여가 가능하다.

9월 1일 저녁 7시 30분 반딧불축제장 주무대에서 원영석 씨(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화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42인조 양악관현악단의 '무주이리랑'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 이외에도 반디예술단과 비보인댄스, 무주나타연 합퍼포먼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9월 2일(10:00~ / 주무대)과 3일(18:30~ / 사랑의 다리)에는 10개국 태권도시범단(150명)의 합동공연이 펼쳐진다.

9월 2일과 3일에는 2017 무주 남대천 물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무주군청 앞 사랑의 다리에서는 물총과 물풍선, 호스와 양동이 등을 활용한 물싸움과 DJ파티 등 공연들이 펼쳐지며 남대천에서는 에어 바운스와 수상자전거, 범퍼보트 등을 활용한 물놀이가 가능하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반딧불축제의 진가는 이번 주말"이라며 "아직 못모셨다고 아쉬워 마시고 금·토·일 프로그램을 만끽해보시라"고 전했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지난 26일 막을 올린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9월 3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남대천과 자남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9월 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은 저녁 7시 주공연장(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16 결산' 재정공시

전년대비 220억원 증가한 4113억원 규모

장수군은 지난 31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건전성 향상을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당해년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대해 연중 2회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 등 9개 분야, 60여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개했다.

군은 공시에 앞서 지난달 30일,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용상황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장수군의 2016년도 전체 살림규모는 총 4,113억원으로 2015년 대비 2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44억원, 이전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52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체수입은 2억원이 감소, 이전재원은 345억이 증가했다.

장수군의 2016년 세출규모는 총 3,008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18억원으로 농업부분이 약 676억(27.9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부분에 약 429억원(17.73%)의 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의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의 체계적 관리로 전년대비 149억원의 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총 102억, 장수읍·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98억 등 261억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확보, 군의 최대 핵심사업인 LPG배관망 구축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룬 한해로 평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2차회의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1일 진안군청 상형실에서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가졌다.

유근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과 부읍·면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진안홍삼축제의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선정과 정부유망축제 진입을 목표로 각 팀장들이 지정된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실무추진단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건의사항을 정리·보완했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축제방문객 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앞으로 축제까지 49일 남은 가운데 모든 부서의 협력 속에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매도시 찾아진안홍삼축제 홍보

진안군은 '2017 진안홍삼축제' 50여 일 앞두고 국내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전향욱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등 2개 팀으로 홍보 방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인천 동구 등 수도권과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영남권 등 7개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해 이항로 군수의 '2017 진안홍삼축제' 초청 서한문을 전달했다.

초청 서한문에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자매우호도시청사 내 축제 홍보자료와 진안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레드스쿨 캠페인 전개

진안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조 주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읍·면 주요지역에서 '레드스쿨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레드스쿨 캠페인(자기혈관 숫자알기)은 단일질환으로 국내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 혈관 숫자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자가 건강관리에 힘쓰자는 취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서 '반딧불이 국제 환경심포지엄' 개최

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반딧불이 국제 환경심포지엄이 지난 31일 무주읍 김현태문화관 &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연습관에서 개최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 제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반딧불이연구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환경지표곤충 반딧불이를 보존하고 환경보호 마인드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환경 관련 단체 회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반디지킴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활동'을 주제로 진행된 1부 주제발표 시간의 좌장은 분당환경시민모임 정병준 대표와 대전대학교 남상호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기타큐슈 반딧불이 모임의 후쿠모리 이케히도가 '주택지 작은 수로에서의 반딧불이 재생'에 대해, 가

초기·구로가와 반딧불이를 지키는 모임의 치지와 우미야기 사무국장이 '새로운 활동 거점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또 참석자들은 응용생물시험연구소 이기열 총무부장이 발표한 '산업공촌의 이해와 발전방안',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이 발표한 '반딧불이 보호지역 현황과 개선방향', 그리고 한국반딧불이연구회 오홍식 총무이사가 발표한 '반딧불이 서식지 감소와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반딧불이 국제 환경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저녁 7시부터 반딧불이 서식지로 직접 나가 무주군 관내에 서식하는 늦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장 견학

장수군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장에 선진지견학과 워크숍을 위해 지난 30일에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30여명이 장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 11회를 맞는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의 진행상황과 이번 축제의 중요 내용설명 등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정읍 구절초향토사업단은 구절초를 활용한 먹거리 등의 상품개발과 구절

초테마공원 내 방문자 센터 구축 등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 위한 선진지견학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지역 어머니 자임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사과,오미자,도마토 등)을 테마로 활용한 체험형 축제로, 지난해 34만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6억원, 경제효과 93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